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친교 후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 **선교부:** 2018 단기선교(2/19(월)—23(금), 혼두라스 라스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 선교팀원: 이민영, 김동수, 김종한,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 교우들의 도네이션은 의료와 전도, 어린이 사역에 사용됩니다.
- **교육부:** Sight and Sound 성극 “Jesus” 관람
 - 일정: 3/31(토) 오전 11시 공연. 아침 6시 교회 출발합니다.
 - 공연과 식사를 패키지로 예매하려고 합니다. 친교실에 Sign-Up 표에 가격과 식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하시는 식당 옆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운전해주실 분 자원 받습니다. (가스비와 톨비 제공)
- 교회 웹사이트가 새롭게 정비 되었습니다.
 - www.nysekwang.org 에서 교회 소개, 행사/예배 안내, 주일설교, 사진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진 등 자료를 보내주실 분은 교회 이메일(nyskch@gmail.com) 로 링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2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윤정호 집사 / 시 25:1-10

이번 주 친교: 오영숙 집사 / 백혜옥 집사

다음 주 친교: 서현숙 권사 / 황인선 사모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황인선 사모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John) 5:1-8** -----인도자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 (2): 여정**”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31장(통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50:1-6 ----- 이영순 권사
 찬양(Choir)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John) 5:1-18** -----인도자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 (2): 여정**”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359장(통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풍성한 생명(1): 탄생 (요3:1-21)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표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요 20:30-31. 요 2:11 참조). 영생은 본질적으로 죽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 17:2-3). 장소나 시간이 본질이 아니라 누구냐가 본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도 생명이신 예수를 알고 믿어 그의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 예수 믿고 사는 지금도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참고 기다리다 천국 가서야 꽃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풍성한 삶입니다(요 10:10). 물론 세상의 성공과 행복, 고상함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풍성합니다. 몇 주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명은 태어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거듭 나아 하나님 나라를 분다고 하십니다. 육신으로는 다 한 번 태어나지만 위로부터 거듭 남으로 영생이 시작됩니다. 결심하고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영생의 거듭 남도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요 1:12-13). 전적인 주권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3:15; 6:47). 여기서 믿음은 내가 주관자와 판단자가 되어서 옳은 것,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교리에 동의해서 받아들이는 것(accept)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이 되는 분에게 모든 판단과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ceive)"입니다(1:12). 이런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은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거듭난 것을 알게 해주는 표징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분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거듭난 자만 할 수 있기에 거듭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예수께 살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뱀처럼 들린 인자, 즉 우리 죄악의 결과로 상징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3:14,15). 이 십자가를 보고 믿어 용서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무엇보다 엄격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모든 죄를 날같이 밝히는 환한 빛이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밝은 빛 앞에, 너무나 무서운 심판 앞에 자원해서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빛이 와도 죄가 드러날까 숨고, 심판을 무서워해 나오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달린 것을 보고 통회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상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또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요 16:8-11).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와 용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범죄함을 이기신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의가 되신 것처럼, 예수와 연합함으로 의롭게 된 자녀 됨을 보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께서 받으신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를 인하여 우리를 죽였던 사단의 권세가 끝장난 심판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범죄한 육신의 생명이 이미 심판 받았으므로 부활 때 있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됨을 알게 하십니다(히 9:27; 요 5:24 참조). 지금 기꺼이 말씀과 성령님의 심판과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영생의 풍성한 삶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 받아 죽은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옛날의 삶의 방식이 더 편하고 효과적입니다. 새 삶은, 예수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은 안 쓰던 근육처럼 생경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고 영원합니다. 믿음을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완성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살아갑니다(히 12:2).